

대행 스님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쉴 수 있어야 진짜 놓는 것이다

아니, 만나고 만남도 없이 또 만났군요. 사계절이 한결같이 이렇게 오늘인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따로 없군요, 만남도 따로 없고. 그러면서도 역력히 또 반갑게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가는 것을 알아야 온 것도 앎으로써 또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들을 줄 알아야 대충 자유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어느 책에서 과학은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과학의 발견은 종교적인 데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성 과학과는 어떠한 관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대로 우리 생활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또는 모두 모였다 흩어지고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그대로 과학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학과 선(禪), 과학은 선이라는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이 과학은 과학대로 나를 먼저 발견해 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 가지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아야만이 이것은 100%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물질로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소 폭탄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소 폭탄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천체망원경이 100%라 할지라도 전체 볼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전체 무전통신기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 됩니다. 또는 남의 속을 탐지기로써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를 전체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넣어 주어야 알 수 있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시밀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넣어야 물질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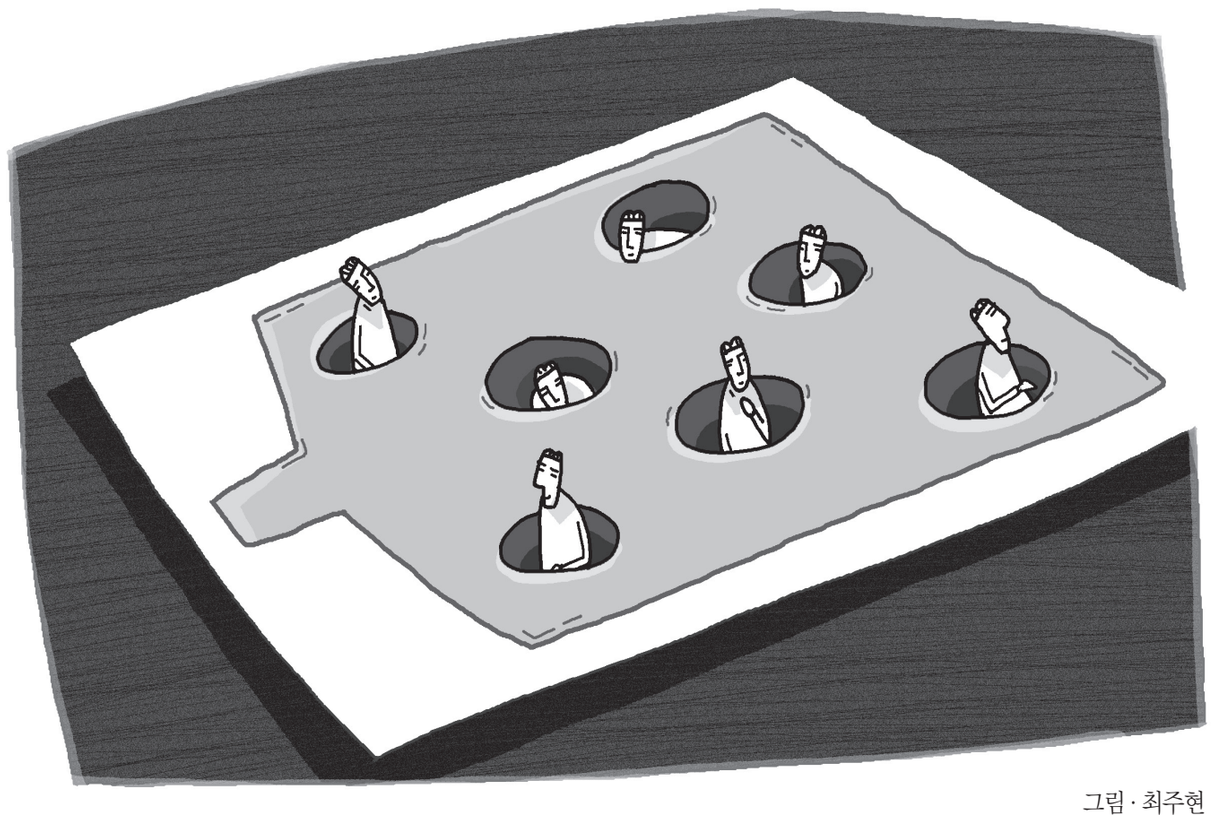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러 주신 이 길의 진리는, 그래서 평등공법이요, 칠활궁공법이요, 팔수레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너무나 묘해서 심안으로 볼 때는 빛보다 더 빨리 천체를 간파할 수가 있고, 듣는 것은 듣지 않는, 즉 말하자면 무심 도리까지, 하다못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꽃이 한 송이 피는 것까지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과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질문자1(남) 결국은 그럼 과학의 바탕은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큰스님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 내기 이전을 먼저 간파해야 마음을 내서 과학이라고 발전을 할 수 있고, 일체 만법에 모든 걸 분야에 맞게 할 수 있죠. 근본이 마음이니까 마음 떠나서 뭐 있겠소.

질문자1(남)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를 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생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육근, 육적이 내 집을 차지해서 이렇게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주인공에서 그 의단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체를 놓는 것과 의단을 내는 것과 가끔 가다 혼동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일체를 놓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셨지만 뒤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마음으로 끼어 잡고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상으로서 모든 것에 끄달리는 것과 지금 놓는 것과 어떤 것이 더하냐고 했는데,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 내는 원소 자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로부터 이끌어 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됐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하여금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내면에 그대로 들이고 내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들이는 숨, 숨 쉬는 것 있죠? 들이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고, 내쉬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 그러면 들이고 내는 숨 쉬는 것은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생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들이고 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들이고 낼 것조차도 없죠.

그리고 여직껏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되어서 끌고 온 장본인,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간파를 못 하니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도 못 하니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놓는 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1(남) 그럼 지금 큰스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일체의 생각들을 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의단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래야만이 의단도 대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의단을 한다면 그거는 빈 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한때 이런 예가 있었죠. 이 길이 대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